

## 大學의 理念과 學問의 自由

河 一 民

(釜山大 哲學科 副教授)

## I

중세의 修道院에 부설되었던 基督教神學의 교리를 전문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에 봉사했던 스콜라(Schola)로부터 眞理를 탐구하는 학문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임(University)으로 출발했던 서양 근세의 대학이 오늘날 직업훈련소나 교원양성소 아니면 연구기관이거나 사회적 지위 향상의 기관(Multiversity) 정도로 생각되게끔 변모하기까지, 그래도 대학이 대학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대학은 인류문화의 진보를 위한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고(대학의 학문연구의 기능) 나아가서 그 진리를 교수(대학의 교육기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적 활동(인간의 이성을 매개로 하는 사고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문공동체로서 역사의 발전과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한다는 신념을 대학은 물론 사회전체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신념의 바탕 위에서 대학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졌고 육성되어졌던 것이다.

대학은 이처럼 학문의 연구와 교수를 통하여 文化를 創造한다는 커다란 사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문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의 발전은 동시에 역사와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졌

고 국가와 사회는 대학과 유기적인 協力關係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산업사회로의 발전과 함께 기존의 가치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질서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가 현실적인 요구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여러 형태로 제한을 받게 되었고, 學問의 自由와 大學의 自治를 그 내용으로 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대학과 국가와 사회간의 협력관계는 긴장과 갈등의 관계로 변모되었고 대학의 내부에서도 산업사회로부터 주어지는 요구를 수용하고 제생산해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제도의 민주적 개혁이 요청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産業社會에로의 급속한 발전은 대학이 상아탑이라는 이름 밑에서 안주할 수 없게 만들었고, 우리의 대학도 산업화의 추세에 밀려 엄청난 양적 팽배와 전통적 관념들—에컨대 대학의 본질적 기능, 이념, 교육의 가치기준 등—을 대학 스스로가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아카데미즘의 순수성을 내세워 현실과의 일정한 거리를 둔 체 초연하기만 했던 대학이 더 이상 현실과의 초연한 거리를 유지한 체 관조의 즐거움만을 누릴 수는 없을 만큼 대학에 대한 현실로부터의 변혁의 요구와 도전은 세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와 도전을 순기롭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대학은 너무나 할것없이 지금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러한 진통과 진장과 갈등도 학문의 본질과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의 이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중의 많은 부분은 적어도 無知로 인해서 생겨난 것임을 알게 된다.

## II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세계는 나름대로의 法則과 秩序—이것을 회랍사람들은 로고스, 동양에서는 道, 道이라 불렀다—에 쫓아서 존재하고 있었겠지만 인간의 思考를 통하여 그 법칙성과 질서가 파악되어지면서부터 비로소 세계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인간의 사고활동이 세계의 법칙성과 질서를 파악하여 이룩해 놓은 이론의 체계를 우리는 학문이라고 부른다. 인간과 세계는 이처럼 사고활동을 통하여 하나의 인간적인 삶의 현장을 형성하게 되었고, 인간의 主體的인 思考活動의 산물인 학문은 이때부터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소중한 지혜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지닌 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학문을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꾸려가는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회랍사람들이 이해한 이유도 바로 학문의 이러한 본질로부터 나온 것이다. 學問의 發生이 이처럼 인간의 삶의 역사와 함께 주어졌지만 문자생활 이전의 인간은 이러한 학문적 지혜를 체계적으로 육성 보존해서 전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문자생활을 갖게 되기까지는 아주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문자생활로 접어들면서 학문의 발전은 놀라운 만한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고대 그리스문화와 인도 및 중국의 고대문화는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높은 수준의 학문을 통해서 이룩된 인류문화의 소중한 유산이라 하겠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近代的 意味에 있어서의 大學은 세계가 보다 확대되고 산업사회의 분업화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진 이후에 학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수해야 할 필요

에서 생겨난, 교수와 학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공동체를 말한다. 이러한 학문의 연구와 교수라는 기능을 지닌 學問共同體로서의 대학이 추구하는 일차적인 가치는 진리의 탐구이다.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니 학문의 전당이니 하고 부르는 이유도 대학이 추구하는 제일의 가치가 진리의 탐구라는 데서 유래한다.

대학에서의 연구가 구체적으로는 진리를 탐구하는 행위로 수행될 때 학문적 진리는 대상에 대한 理性的 確信이라는 형식으로 주어진다. 그런데 학문이 이성을 통하여 대상적 인식을 수행할 때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대상은 역시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서의 현실이다. 여기에서 現實과 學問 사이에 주어지는 근원적인 연관성이 드러난다. 학문이 현실을 그 탐구의 대상으로 문제삼는 이유는 역사적·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실존적인 삶을 이룩하는 터전이 바로 나의 현실이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現實을 문제삼지 않는 학문이론이란 그러한 의미에서는 성립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때로는 왜 학문은 현실을 외면한 채 상아탑 속에 숨어 있느냐는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 이러한 비난은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아예 학문은 현실을 대상으로서 문제삼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에 학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기대도 해서는 안 된다는 학문무용의 논리로까지 비약함을 가끔 보게 된다. 이러한 非難과 無用의 논리에 대한 학문의 대답은 아카데미즘을 내세워 강당 안에서 안주하기를 원했던 전세기의 비학들이 학문의 대상에서 구체적인 삶의 터전인 역사적·사회적 현실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했거나 아니면 이성을 통한 현실에 대한 학문의 고유한 접근방식이 비학문적이거나 반대학적인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순수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요구할 뿐이다.

학문은 그 발생에서부터 인간적인 삶의 터전인 현실에 대하여 이성을 통하여 그 대상적 연관성을 추구해 왔다는 사실은 위에서 이미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학문과 현실의 대상적 연관성 속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이성의 기능은 무엇인가? 학문과 이성의 관계에서 본다면 이성

은 學問存立의 근거로서 활동한다. 또 이성과 현실의 관계에서 본다면 대상적 현실을 파악하는 주체적 활동으로서 존재한다. 이처럼 이성은 대상적 인식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인식활동 그 자체라는 2重的 構造를 가지면서 학문과 현실을 그 대상연관성 속에서 파악하는 기능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성은 본질적으로 부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학문의 고유한 접근으로서의 이성의 활동은 처음에는 현실의 부정이라는 형식으로 수행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성이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가 현실을 파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이성의 현실에 대한 否定的 接近은 현실을 단순히 그 현상성에서 파악하는 것을 현실에 대한 완전한 파악이라고 보지 않는 이성의 방법적 부정의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성의 부정적 행위는 현실을 그 현상성에서가 아닌 인과관계나 미래의 가능성 속에서 파악하려는 理性의 本性으로부터 이해되어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현실은 언제나 역사적 사회적 현실이라는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현상성 속에 고정시켜서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을 필연성의 전체적인 연관성과 그 가능성 속에서 파악하려는 이성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부정의 정신을 그 본성으로 하는 이성활동을 성립요건으로 삼고 있는 학문이 이처럼 현실의 부정을 통하여 이성적 확신인 학문적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학문자체의 고유한 기능이고, 방법임을 이해할 때에 대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줄어들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빛어지는 大學의 自律性에 대한 논의도 분명해지리라 믿어진다.

### Ⅲ

한편 대학을 학문적 기능(연구의 기능)이 아닌 教育의 機能에서 이해할 경우에도 위에서 보아 온 현실과 대학의 緊張關係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대학교육은 그 가치기준을 어디에다 설정하느냐에 따라 대학과 현실과의 관계가 다르게 정립되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을 學問的 機能 다시 말해서 진리탐

구로서의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게 되면 지적 엘리트의 양성이라는 가치지향성이 주어진다. 대체로 전세기의 독일의 대학과 이를 모방했던 일본의 대학 및 일제하의 우리의 대학이 이러한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아카데미즘을 내세워 현실과의 일정한 거리를 지키면서 觀照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와는 달리 영국의 대학처럼 대학교육을 人間形成이라는 면에서 통합적인 가치추구에 역점을 두게 되면 상류계급의 신사도 양성이라는 귀족적인 통치엘리트 양성에 치중하게 되고, 또 미국의 대학처럼 전문적 학문만을 연구, 교수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지식을 통하여 道德的 能力을 개발하여 사회의 통합과 개인의 인격의 결합을 중시하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사회의 통합과 이를 구성하는 민주적 인격의 형성에 중점을 두는 존 듀우이의 교육이론으로 발전한다.

또 파시즘의 여러 나라에서 보아 온 것처럼 대학교육이 국가목표와 統治集團 目標의 달성을 위한 훈련에 중점을 두는 정치적 가치를 지향할 때, 학문의 탐구나 인격의 도야 및 교양의 습득이라는 대학교육의 주된 내용까지도 결국은 국가 목표달성이라는 政治價値에 종속되어 버리고 만다. 산업사회에로의 급격한 변화는 人文主義 교육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여 실용교육 내지 지식산업으로서 대학교육이 이해되며, 이 경우 산업화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전문가를 배출하는 직업교육으로 되어져 지식의 기준을 사회에 있어서의 실제적 사용의 유용성에서 그 가치성을 구하게 된다. 이는 산업화사회의 대학이 한결같이 추구하는 價値志向性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대학은 위에서 든 여러 가지의 가치지향성을 복합적 기능으로 수행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대학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는 多樣性을 띠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의 내용이 다양성을 가지게 된 이유는 현실 속에 공존하면서 실존적 인간들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빛어지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實存의 人間의 일반적인 특징은, 현실을 그 현상성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태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현실에 관계하는 태도를 달리하면서

理性的 부정과 批判의 기능을 신뢰하는 공통적 기반 위에 섰을 때 가능해지는 이해와 설득을 포기하고 서로가 자기 태도의 정당성을 주장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강요로 치달기 쉽다.

大學教育이 현실에 대한 비판정신을 고취한다고 할 때 이러한 비판정신의 고취는 어디까지나 현실을 미래적인 지평에 있어서의 가능성에서 이해하려는 이성의 본성에 기인한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學問的 探求는 그것이 확대되면 될수록 학문의 내용과 수준을 높이는 결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권장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가능성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실현될 때 인류의 역사는 발전되고 문화는 진보의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적어도 어떤 견해의 타당성이 強制力에 의하여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편타당성과 공명성을 둘러싼 현실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현실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마땅히 해결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자기보존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사회가 되려면 理性的 理解의 가능성에 대한 지평을 무한히 개방하여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이해의 가능성에 대한 지평의 개방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否定的이고 批判的인 사고도 수용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 되겠고, 적극적으로는 부정적 이성의 활동을 근간으로 하

는 학문적 기능의 고양을 人間形成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된다. 대학은 그렇기 때문에 연구와 교수를 통하여 이러한 기능을 주된 임무로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IV

이제 대학은 그 연구와 교수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理性的 原理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또 한갓 기술이나 지식의 습득이 대학의 본래적 기능의 수행이 아님도 분명해졌다. 대학은 현실을 이성을 통하여 물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 本來的 機能을 수행하게 된다. 또 學問은 현실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물음을 통하여 理性的 確信인 학문적 진리에 도달함으로써 그 기능을 완수한다. 따라서 대학은 이러한 이성적 인간의 교육과 함께 이성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모든 비학문적이고 반대학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맞서서 대학의 이념과 그 본래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본다면 學問의 발전과 文化의 진보는 항상 비례적 관계에 있었다. 우리의 대학도 학문의 발전과 문화의 진보와 인간구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으로 되기 위하여 대학의 자율과 비학문적이고 반대학적인 요소의 척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